

지속가능한 수목장립을 위한 추모 서비스 개선 방안

이정선* · 차성수**

목 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국내 수목장립의 현실과 문제

2.2. 해외 수목장립의 운영방법

2.3. 수목장립의 추모 서비스 방법 전환

2.4. 산골 (散骨) 또는 산분장 (散粉葬)의 방법 검토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요 약

현재 화장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화장후 장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 자연 친화적인 장법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자연장의 대표격인 수목장과 수목장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나무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법이 지속된다면 수목장 (립)이 숲을 훼손하여 또 다른 묘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수목장립은 우리가 가진 자연이라는 공간으로 인간이 회귀한다는 시간적 의미가 깃들여져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여 돌아간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는 장법이다. 이렇듯, 수목장립은 우리가 익히 아는 전통적인 장사시설이 아님에도 시설과 운영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공원묘지 기준을 차용하면서 법령상의 자연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은 숲을 보존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수목장립의 확장성과 운영에 제한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목장립 운영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자연장 유형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정서와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정착할 수 있는 수목장립의 방향을 찾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추모목에 의탁하지 않는 안치 방법, 익명이나 무기명 수목장립의 운영, 그리고 참배 추모 방식의 전환, 그리고 다양한 산골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지속가능한 수목장립의 대안을 제안한다. 수목장립이 시행되는 곳은 산림, 다시 말해 숲 자체이다. 장사시설이 아닌 숲을 통한 고인의 진정한 자연회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서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 즉 숲의 사회적 기능을 친환경적인 장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표제어: 자연장, 수목장 (립), 추모 서비스, 산분장 (산골), 장사문화

접수일 (2024년 02월 14 일), 수정일 (2024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2024년 06월 07일)

* 제 1저자, 을지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장례산업전공 조교수, jslee@eulji.ac.kr

** 교신저자, 을지대학교 바이오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조교수, sscha@eulji.ac.kr

1. 서론

불과 20여 년 전 화장률 20% 미만이었던 우리나라 전국 화장률이 2022년에 평균 91.7%를 기록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화장하면 유골을 산에 뿌리는 줄만 알았던 이전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장사문화는 급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화장장려 운동과 정부 정책이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배경에는 묘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푸른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슬로건이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화장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후손이 대를 이어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한때 돌로 만든 거대한 봉안묘가 우리 산하를 차지했다. 그리고 전국에는 우후죽순처럼 공사설 봉안당이 늘어가다 이름을 봉안당으로 바꾸어 우리 곁에 자리 잡았다 (Kim et al., 2004).

자연장 장법이 등장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2008년에 공인되면서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하는 비율은 67.5%인 반면, 자연장은 16.1%에 그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봉안시설에서 안치하는 수요가 조금씩 수목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자연장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Shin, 2023). 자연장에는 수목장과 수목장림 외에도 잔디형, 화초형 등이 있으나, 국민의 인식과 선호는 수목장과 수목장림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 이는 모두 나무에 의탁하는 공통적 특징이 있는 장법이기도 하다. 나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삶의 흐름에 맞으면서, 편안하게 회귀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나무는 흙으로 이루어진 봉분보다 미적으로 아름답고, 자연에 동화되면서 추모의 상징물이 되어준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Woo, 2006; Woo et al., 2011). 또한

환경친화적 인식이 높은 현대인들에게 다른 장법에 비해 자연에 해를 덜 끼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Kwon et al., 2014).

2021년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의 ‘수목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수목장에 대한 긍정적 의향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환경) 친화적인 장법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수목장 (림)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Gallup Korea, 2021). 그럼에도 지금의 수목장림은 나무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해서 추모목을 지정하며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시점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수목장림의 형식을 고민하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형태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연장을 정착시킨 국외 자연장 운영 형태와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추모목에 의탁하지 않는 안치 방법, 익명이나 무기명 수목장림의 운영, 합동 수목장 (림), 그리고 참배 추모 방식의 전환 방법을 제안한다.

2. 본론

2.1. 국내 수목장림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나라 자연장지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산림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에 대한 규제가 일반 장사시설의 수목형 자연장지보다 더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런 규제가 수목장림이라는 숲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목장림의 조성 운영에 효율적인 운영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Kim, 2018).

장사법 제2조 (정의)의 수목장림 관련 조항 제3, 13, 14호를 이어서 보면, 수목장림은 산림에 조성하는 ‘화장한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지이다. 자연에 널려있는 크고 작은 바위 (암석) 등의 활용 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주변 숲에는 꽃과 풀, 작은 관목과 큰 교목은 물론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바위가 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아름다운 개울도 있다. 우리나라는 보통 국민의 인식은 자연장이면 산골부터 수목형 자연장까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아직은 우리 자연장지의 가장 큰 부분인 수목장립이 나무에만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뿌릴 수 없게 한 것’이 우리 자연장지의 효율이나 탄력성을 저해하는 큰 제약이었지만, 다행히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법에 “뿌리는” 행위를 산본장이라는 이름으로 장법을 명시하였다.

자연장의 유형인 잔디 및 화초 형태의 경우, 성질상 그 아래든 주변 어디든 물을 수가 있다. 이에 비해 수목 형태는 그 주변에 물을 수밖에 없다. 주변이라는 제한 또한 수목장립이 땅의 사용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수목장(립)운영에서 가족목과 공동목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 역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가족목으로 계약했지만, 상당수의 안치공간이 남아있음은 문제이다.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의 장지 공간을 미리 마련해 두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수목장립의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작은 나무를 이용한 개인목, 부부목과 큰 나무를 이용한 공동목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 용미리묘지의 경우, 수목형 자연장지에는 다수(6~12명)의 고인 표지를 부착한 공동 표주(標柱)를 사용하고 있다. 울산시 및 국립피산 호국원 등 잔디형 자연장지에는 수십 명의 고인 표지를 새긴 공동표지석을 사용하고 있다 (Oh et al., 2010). 다수 자치단체의 잔디 및 수목형 자연장지에는 석제 고인

표지를 바닥에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수목장립에서는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를 수목에 매다는 방식으로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수목장립은 절대적으로 나무에 의존하는 장법만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수목장립의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해 나무에 위탁하는 장법은 수요가 늘어남에 새로운 추모목을 식재하고 확장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새로운 묘지 설치로 인한 국토 잠식을 우려하였던 매장문화를 화장으로 전환한 지 이제 막 30년을 향해가고 있다. 또다시 추모목으로 잠식해가는 산지를 지켜볼수는 없다. 자연과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연장을 정착시킨 국외 사례를 통해 다양한 자연장의 운영방법을 차용해보고자 한다.

2.2. 해외 수목장립의 운영방법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수목장립은 2008년 법제도화 당시의 패러다임에 묶여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이 제도화될 때까지 적잖은 관계자들이 스위스와 독일의 수목장립 운영회사의 프리드발트(Friedwald, 기업 등록상표)를 방문했고, 그 형태와 방식을 그대로 도입했다고 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Korea Forest Service Association, 2021).



[Fig. 2-1] Lisbon, Portugal, Scattering Ashes Spot

[Fig.2-1]의 포르투갈 리스본 올리바이스 묘지 화장장 (Cemitério & Crematório dos Olivais의 산골 (자연장) 장소의 크기는 불과 100㎡ 안팎의 크기이다 그냥 잔디밭이다. 매골을 하고 지상에 아무런 표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지표면 산골보다 오히려 장점이 많다. 안장된 고인들에게 개별 영역을 부여하지 않는 공유 형태이기 때문에 초라한 동물 묘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넓은 땅을 사용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유골이 토화되는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정비 없이 재사용도 가능하다.

또 독일 묘지의 익명봉안묘역 (Anonyme Urnenbeisetzung)과 북유럽 스웨덴의 일반적인 형태의 미네스룬드 (Minneslund)에서도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인다 (Kang, 2006).



[Fig 2-2] Tree Type of Bury Together at Memorial Green, Yokohama, Japan

더 가까운 예는 일본 요코하마시립 메모리얼그린 (横浜市立メモリアルグリーン) 묘지가 있다. 여기에

는 ‘도시형 수목장’이라고 분류되는 수목형합장식봉안시설 (樹木型合葬式納骨施設)이 있어, 추모목 큰 나무 한 그루 아래에 1천구의 유골을 안장한다고 소개하며, 모두 3곳이 마련되어 있다 (Eulji University, 2022).

어디에도 고인의 표지를 남길 수가 없고, (물이 흐르는) 돌레에 꽃을 심어 둔 데다 현화대에 간접 참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개별 안치 장소로 접근을 막고 있는 셈이다.

골분을 안치하는 방식은 바닥에 동그란 안치 구멍 (Hole)을 판 다음, 무너지지 않게 원통을 넣고 그 위에 약간의 장식을 해둔다. 골분이 도착하면 흙에 섞거나 그대로 흙 안에 안치하고 원통을 제거한 다음 흙을 되메운다. 산골 대체 수단이기 때문에 고인 표지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주 쉽게 분해되는 재질 또는 일회용 간이 표지 등을 100일 ~ 6개월 이내 단기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시행하도록 한다.

장지 (葬地)에 고인의 표시를 남기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묘석 (墓石)에 고인의 성명과 생몰 연월일을 새기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장지에 이름을 남기는 걸 원치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좀 더 확실하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사람도 종종 있다. 이런 희망을 수용하여 탄생한 것이 구서독과 스위스 등지의 익명 합동봉안묘역 (Anonyme Urnenbeisetzung)이고, 이것은 2000년 초반 우리 자연장지 제도화 연구의 아주 중요한 조사 대상이기도 했다 (Lee, 2022).

이에 비해 북유럽 스웨덴의 미네스룬드 (Minneslund)와 유사한 장지는 무기명,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이름을 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 방식은 사회주의적인 공공자산의 공유 문화가 발전한 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통독 이전 구동독지역에서 이런 장법을 많이 권장한 역사적인 과정도 있다.

수목장립 중에 고인의 표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스위스 취리히 시립묘지의 골분매장숲 (Wald für Aschenbeisetzungen)이고, 이들은 숲속에 아무것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것이 익명이든 무기명이든 고인의 표지를 남기지 않은 방식 (때로는 추모 물품도 전혀 남길 수 없는)은 결과적으로 장지를 공유하는 모습으로 표출된다. 그리고 공유방식 장지의 관리는 사용자 개개인 책임을 떠나 설치관리 주체가 사후 관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장지 공유의 가장 큰 장점은 유족에게 장지 마련과 사후 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지를 좁게 나누지 않아서 왜소한 동물 묘 같은 느낌을 주지 않고 품위를 유지해 준다. 또한 수목장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굳이 숲속 깊이 들어가 참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면 충분한 것이다.

2.3 수목장립의 추모 서비스 방식 전환

장사시설에서 고인을 참배 추모하는 방식은 직접 (대면) 참배, 간접 참배, 원격 (사이버) 참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참배방식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또 간접 참배방식은 안치 공간에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금지하면서, 지정된 공간에서만 제례나 헌화 등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는데, 현대 봉안당 등에서 더러 채택하고 있다. 원격 참배방식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손쉽게 고인이 안치된 (가상) 공간에 접속 참배 추모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매장 또는 안치 공간에 대한 직접 참배에다 제물 진설 (陳設) 후 재배 (再拜) 즉, 두 번 큰절을 올리는 관습까지 있다. 그 때문에 장사시설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접근 및 참배길 설치와 안전 통행 확보를 위한 수단 등이 필수적으로 따른다.

이른바 전통 관습은 수목장립에서는 일부 지각이 없는 유족이 숲의 저층부를 해치는 당연한 명분 같이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 조문 및 성묘객의 출입은 지면에 가해지는 답압 (踏壓)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2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가져온 제주 (祭酒)와 제물로 인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런데 기존 추모원의 추모방식을 바꾸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간접 추모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 다른 장사시설의 경우에서 보듯 장사시설을 찾아와서 참배하는 인원은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적절한 공동 추모공간과 좋은 추모 조형물을 마련하면 직접 참배 숫자의 감소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앞 [Fig. 2-3]는 외국 장사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형태로 된 추모 조형물이다. 이 나무의 잎을 고인 표지로 장식한다면 꽤 의미 있는 조형물이 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느낌의 조형물을 활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2.4 산골 (散骨) 또는 산분장 (散粉葬)의 방법 검토

우리 산골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사건은 삼국사기 신라 제34대 효성왕 (737~742) 기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 권 제09 신라 본기 9, 효성왕 (孝成王, 신라 제34대 왕, 재위 737~742) 6년에, “6년 5월 유성이 삼대성 (參大星)을犯 하였다. 왕이 흥 (薨, 사망) 하시니 시호를 효성이라 하였다. 유명 (遺名)에 따라 관 (槨)을 범류사 남쪽에서 불사르고 (화장하고) 동해에 산골 (뼈를 흩음)하였다고 되어 있다 (Park, 2006).



[Fig 2-3] Memorial sculpture at Cannock Crematorium, England

그 밖에도 문무왕을 비롯하여 여러 왕과 귀족 등이 화장 후 산골하였음을 전하는 기록이 다수 남아 전해진다. ‘화장 후 산골’하는 고려시대 기록은 더욱 풍성해진다. 구체적으로 화장 후 뼈를 갈아 밥과 섞어 물고기 밥으로 보시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전해진다. 조선시대 화장 금지는 산골이라는 장법도 사라지는 결과가 되었고, 용어도 같이 사라졌다.

그런데 1990년대 우리나라에 화장 장려운동이 전개되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산골이라는 용어도 다시 사용하게 된다. 2003년 서울시에서 산골을 공식용어로 사용한 바가 있었다.

또한, 산골방법은 아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Eulji University, 2022). 그 첫 번째로 살골 (撒骨) 방법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강변 및 해변이나 선상, 들판이나 산에서 유족들이 직접 손으로 골분을 뿌리는 가장 흔한 방식이었다. 이때 도구를 이용하여 산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흔적이 없지만,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사용했다. 산골 전용 용기에 담아 손잡이를 작동시켜 용기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잔디 등에 뿌려지게 된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잔디밭 형태), 영국의 Rose garden 외, 홍콩의 Garden of Remembrance 등도 거의 같다.

두 번째 방법은 매골 (埋骨) 방식이다. 용기 없이 흙 속에 산골하고 바로 복구하여 지면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잔디형 자연장 (고인 표지 없는)을 행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하다. 포르투갈 리스본 올리비아스 묘지 화장장, 네덜란드 자연묘지 등에서 관찰되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장의업자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알프스 빙하에 골분을 묻어주는 영업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방법은 시설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이는 골분을 사전에 설치해둔 일정한 시설 (대체로 지하인 경우가 많다)에 투입하여 모아두었다가 그 장소에 그대로 매몰하여 합동 추모시설로 하거나 (스위스 베른 브렘가튼, 루체른 프리덴탈, 일본 합장식묘소) 또는 유골을 꺼내 다른 곳에 합사하는 매장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유택동산, 일본의 영회동 등)이 있다.

다음 네번째로 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산골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장의업체에서는 기계장치와 압축 공기 또는 화약 등을 이용하여 자연에 아주 넓게 산골해준다고 광고한다. 또 일부에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기구나 드론 등을 이용해서 산골하기도 한다. 형가리와 동유럽 일부 묘지나 화장장에서는 다음 [Fig. 2-4와 같이 묘지에 마치 큰 분수대 같은 산골장소를 마련하여 분산 설비를 갖추고 산골하고 있다. 물에 씻겨진 미세입자는 강으로 흘러가고 필터에 걸러진 골분은 그 주변 잔디밭에 매장한다.





[Fig. 2-4] Fiumei Cemetery, Budapest, Hungary, Scattering ashes spot

3. 결론 및 시사점

자연의 숲에서 영면한다는 사후 자연 회귀 관념은 독일뿐만 전 유럽 장사문화의 중요한 흐름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 모습은 문화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제각각 관습이나 여건에 따라 나름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우선, 이름이나 형식이 어떻든 사후 “온전히 숲으로 돌아간다”라는 정신을 바탕 (Woo, 2006)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 정신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수목장립에 안치한 후 개장 (改葬)을 할 수 없거나 하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묘지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익명이든 무기명이든 고인의 표지를 남기지 않은 방식 (때로는 추모 물품도 전혀 남길 수 없는)은 결과적으로 장지를 공유하는 모습으로 표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무기명 방식의 선택지를 돕으로써 안장 후 공간의 재사용을 가능케 하고, 나무에 매다는 표식에서의 경직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둘째, 추모목 주변에 안치한다기보다는 숲에 안치한다는 개념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 수목장립이 추모목을 중심으로 안치하고 있지만, 추모목 선정 방식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다른 나라

를 살펴보면, 숲속 나무뿐만 아니라 바위·그루터기 등과 같은 다양한 숲속 요소들을 이용하여 안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모뉴먼트를 허용하면서도 자연적인 산물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셋째, 산골 (산분장)을 허용 또는 정식 유료 장법으로 사용하는 곳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골을 하나의 장법으로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격식과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의식을 고안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목장 (립)의 참배방식은 직접이 아닌 간접방식으로 유도하여 자연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참배객을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살펴본 여러 나라의 수목장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숲”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무 중심이 아닌 숲을 중심에 둔 수목장립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 회귀라는 인간 본성 충족과 환경의 보존에 맞도록 확대 발전하여 우리의 삶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목장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Eulji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2022). *A Study on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of National Tree Burial*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국유수목장립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2] Gallup Korea (2021), *Survey of public awareness of tree farms* (한국갤럽 (2021), 수목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1.3.3.~3.31).
- [3] Kang, K.H. (2006) Tree urn graves in the German burial law system,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7(2), 489-518. (강기홍

- (2006), 독일 장사법 체계에서 수목장, 공법학연구, 7(2), 489-518).
- [4] Kim, M.K. (2018), A Study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Its Improvement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the Forest for Tree Burial, *Kyung Hee Law Journal*, 53(3), 415-448. (김규면, 수목장림 조성에 관한 법제와 그 개선방안, *경희법학*, 53(3), 415-448).
- [5] Kim, O., Park, B., Lee, B., Kim, S., Lee, P., Park, T. et al. (2004), Scattering Ashes Culture: Research for a New Approach, Seoul: National Council for the Reform of Korean Funeral Culture. (김외정, 박복순, 이봉화, 김시덕, 이필도, 박태호 외 (2004), 산골문화: 그 새로운 접근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장묘문화개혁국민협의회).
- [6] Korea Forest Service Association (2021), *A case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oodland burials in Korea and major countries in Europe*, Daejeon: Korea Tree Burial Culture Foundation. (한국임우회 (2021). *국내외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우수사례 조사·발굴 연구 용역*, 대전: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A Study on ways to revitalize natural growth*,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자연장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8] Kwon. B., Woo, J., Park, W., and Byun, W. (2014). A Activation Plan Sugges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among the Types of Tree Burial Sites,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103(2), 287-298. (권병석, 우재울, 박원경, 변우혁 (2014). 수목장지 유형별 만족도 조사 분석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제안, *한국산림과학회지*, 13(2), 287-298).
- [9] Lee, J.D. (2022), Funeral Services System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Hanyang Law Review*, 39(1), 161-186. (이종덕 (2022), 독일의 장사 관련 법체계와 국내법에의 시사점, *법학논총*, 39(1), 161-186)
-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Yearbook*, p398. (보건복지부,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p398).
-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2018-2022, The 2nd comprehensive plan for supply and demand of burial facilities, (보건복지부 (2018), 2018-2022년 제2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안).
- [12] Oh, C.H., Kim, Y.H., Lee, S.M. (2010). Construction and Management Directions of Woodland Burial Forest: Case Study of Incheon Family Funeral Services,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13(3), 1-12. (오충현, 김용훈, 이숙미 (2010). 수목장림의 조성 및 관리 방안: 인천가족공원을 대상으로, *한국환경학회지*, 13(3), 1-12).
- [13] Park, T.H. (2006), 『History of Funerals』. Paju: Seohae Colledgeion. (박태호, 장례의 역사, 파주: 서해문집).
- [14] Shin, Y.H. (2023), An Analysis of Korean Bereaved Family's Attitudes Towards Choosing Forest Burial and Its Related Facto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4(3), 195-208. (신윤희 (2023). 우리나라 유가족의 수목장림 선택에 대한 태도와 관련요인 분석, *인문사회*21, 14(3), 195-208).

[15] Woo, J.W. (2006). Classification of tree plantation types and research on civic consciousness, Master's thesis a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우재욱 (2006). 수목장림의 유형구분과 시민의식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Woo, J.W., Byun, W.H., Park, W.K., Kim, M.S., Lim, M.W. (2011). Factor Analysis on Citizen's Motives to Tree Burial and Choice Conditions to Tree Burial Site. *Journal of Korean Forestry Society*, 100(4), 639-649. (우재욱·변우혁·박원경·김민수·임민우 (2011), “수목장의 동기와 수목장지 선호조건에 대한 요인분석”, *한국임학회지*, 100(4), 639-649).

	<p>Lee, JeungSun (jslee@eulji.ac.kr)</p> <p>Lee, Jeungsun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Funeral Industry Major at Eulji University in Seongnam. She received her Ph.D. in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She holds a Master's and Bachelo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Texas A&M University at San Antonio, Texa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areas in National Cemetery, Natural Burial, Funeral (Memorial) Services as well as Mortuary Science.</p>
	<p>Cha, Seong-Soo (sscha@eulji.ac.kr)</p> <p>Cha, Seong-Soo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Food and Biotechnology Major at Eulji University in Seongnam. He received his Ph.D. in Management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worked at Lotte Group and served as the HR team, marketing team, management planning team, management strategy team, master plan team, and MD team leader (senior) at Lotte Shopping Co., Ltd.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areas in food economy, food marketing, AI Robot Industry, Merchandising etc.</p>

Improving Memorial Services for Sustainable Forest Burials

Lee, JeungSun* · Cha, Seong-Soo**

ABSTRACT

Currently, social interest in post-cremation funerals is growing due to the establishment of cremation culture. In addition, as awareness of nature-friendly funeral methods spreads in modern times, the demand for tree burial grounds and tree groves, which are representative natural burial methods, is increasing. However, if the current method of relying on trees is used, the forest burial may damage the forest and turn it into another cemetery. The tree decoration is a funeral method that contains the temporal meaning of humans returning to the space of nature that we have, and the philosophical meaning that humans return in compliance with nature. Like this, there are quite a few concerns. Even though tree burials are not the traditional burial facilities we are familiar with, many of the facilities and operating systems adopt the standards of park cemeteries and have stricter standards and restrictions than natural burials under the law. This rigidity is intended to preserve the forest, but the reality is that it limits the expansion and operation of tree plant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seeks to find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for sustainable tree plantation operation. To this end, we look at the types of natural fields in foreign countries and find directions for tree planting that can be effectively applied and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entiments of the peopl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an enshrinement method that does not rely on memorial trees, the operation of anonymous or anonymous tree planting, a change in the method of visiting and commemorating, and various mountaineering methods, thereby suggesting alternatives to sustainable tree planting in Korea. The place where tree planting is implemented is the forest, that is, the forest itself. It should be a place where the spirit of natural return, which is the essence of the deceased, can be celebrated through the forest, not a funeral facility. By doing so,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the public value of the forest, that is, the social function of the forest, in the name of an eco-friendly funeral service.

Keywords: natural burial, tree (Forest) burial, memorial service, Scattering Ashes, burial culture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Funeral Industry Major,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Eulj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Food and Biotechnology Major, Department of Biotechnology, Eulji University